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세계 보건기구(WHO)는 1968년의 홍콩독감, 2009년의 신종플루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2020년 3월 11일에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3145만 명, 누적 사망자는 96만 명에 달한다. 가히 세계적 재앙이라 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이를 3차 세계대전 발발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총성 없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헝가리의 한 연구소 실험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한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죽지 않고 90도의 고온에서 10분간 가열해도 살아남았다고

코로나 시대의 문제적 인물

한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고 있음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려는 자가 있으니 바로 한국의 전광훈 목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신천지 교회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다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싶었는데, 근래에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모범 방역국이라 일컬어지는데도 9월 23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2만 3216명, 누적 사망자가 388명에 이른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 곁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여 준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그 결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1168명에 이른다. 그는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외집회를 강행하며 “기도하다 죽으면 영광이다” “전염병은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애국 시민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 “야외에선 감염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다.

그는 각종 법령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코로나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후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수감되면서 그는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어 버렸다”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웃고 있는 그는 분명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적 인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에 전광훈이 있다면 미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그는 이렇다 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쉽고 간편한 예방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마스크 착용인데도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 원래 서양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4월 3일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7만 5000명, 사망자가 7000여 명에 이르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미국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후에도 트럼프는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것이다” “코로나는 독

감 같은 것이다”라 말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질문하는 기자에게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

그러던 그가 7월 11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이날 누적 확진자 수가 340여만 명, 사망자가 13만 7000여 명에 이르자 사태의 심각성을 비로소 알았던 것일까? 아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18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쓴 책 ‘격노’에 의하면 트럼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코로나가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고 한다.

코로나의 위험성을 고의로 은폐한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이 나라의 치어리더다.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싶지 않고 패닉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9월 20일 미국의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면 250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 1위의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조금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트럼프는 전광훈 못지않은 문제적 인물이다.

社說

코로나 사태 속 추석 연휴 슬기롭게 넘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들은 닷새간의 긴 연휴가 감염 확산의 또 다른 통로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예전처럼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어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또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 대해서는 1-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 17일 이후 열흘 동안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시도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연휴 이후 대구

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 중단과 거리 두기로 취약 계층은 더 외로운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안부 전화는 물론 급식·위문품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동 자체 권고에 따라 이번 추석은 사상 초유의 ‘비대면 명절’로 치러질 전망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별초는 대형 서비스로, 성묘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귀성은 피할 수 없는 만큼 터미널·공항 등에 대한 방역과 검역을 철저히 해야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 접촉을 되도록 줄이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자신과 가족 및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하는’ 시민의식으로 추석 연휴를 슬기롭게 넘겨야겠다.

‘소멸 위기 지역’ 집중 지원 특별법 마련을

광주-전남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나 영남권은 물론 최근엔 충청권까지 밀리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부터 집중 지원하는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된 충청권만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진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세종시 건설 이후 충청권 인구·경제력 집중이 시작됐으며, 대덕연구단지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신행정수도까지 조성되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민간투자 등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은 인구·경제 등 각종 지표에서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 뒤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호남권의 영향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 지역과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앞으로 중점 지원해야 하며 대전혁신도시 조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호남권의 낙후와 쇠락이 우려되는 현실’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제2의 중앙 집중을 초래한다는 이원일 광주대 교수의 말도 정확한 지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제2의 중앙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소멸 위기 지역 집중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우선 배정이나 국책사업 우선 선정,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축소나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청춘 특·특

드러나는 우리의 업(業), 지구 온난화



이효빈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2

의 이용이 급증했다. 그만큼 일회용품의 사용도 늘어 배달 한 번 할 때마다 ‘쓰레기 폭탄’을 맞는다 는 이야기도 있다. 추석 선물들은 또 어찌나 포장에 화려한지, 아파트 분리 수거함에 넘쳐나는 게 재활용품 쓰레기다.

위생을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만 재활용 업체의 경영 악화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활용품의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거나 소각 처리되고, 더불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도 가중되고 있다.

몇 주 전,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타이파’와 ‘사이먼’을 기억하는가? 거의 일주일 간격을 두고 닥친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무시하지 못할 파괴력을 주고 사라졌다. 이에 대해 미국 국립기상연구소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앞으로 태풍이 더 자주 일어나고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의 허리케인들을 21세기 말에 예상되는 기후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았더니, 대부분 풍속이 6% 가량 빨라지고

강수량도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 중의 온도가 상승하면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제주 바다에 해파리들이 엄청나게 불어나 피서객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해파리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의 수가 많아지면서 해파리의 수도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해파리를 잡아먹는 천적인 거북이나 개복치, 쥐치 등이 남획과 환경 오염 등으로 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 그야말로 해파리에겐 천적도 없고, 먹이는 많은 천국이 된 것이다.

만년설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공기와 바다로 퍼져나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현재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감염된다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빠르게 범하기 쉬워지는 과정에서 영구 동토층과 빙하에 갇혀 있던 각종 미생물이나 고대 바이러스들이 함께 녹아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창궐할지도 모른다. 실제

로 2016년 사베리아 지역에서 유행한 탄저병의 경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의 동토 층이 녹아 탄저균에 감염됐던 사체가 노출되었고, 균이 지하수를 타고 들어가 감염시켰다는 주장이 거론되었다. 이것이 비단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까?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터지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2차적인 문제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도 그렇다. 지구 온난화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고 어쩌면 이미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피해가 없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 정도는’ ‘이 정도야 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지금의 지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한 번 바뀌어야 한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개인의 노력뿐만 아닌 기업과 나라의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아주 긴 싸움이 될지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다.

기 고

풍요로운 수확기를 기다리며



김석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는 일조량 부족과 강수량 과다로 생육 장애와 탄저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했다. 8월의 집중 호우는 구래와 곡성 등지에 농경지 침수와 주택·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파손과 함께 수확 및 출하를 앞두고 있었던 멜론 등 수많은 농작물과 한우 등 축산물을 잃게 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연달아 찾아온 세 개의 태풍은 냇해 피해 이후 어렵게 수정시킨 사과·배 등을 낙과시키고, 벼를 쓰러뜨렸다.

코로나19는 또 다른 생재기를 남겼다. 졸업식과 입학식은 취소되고 결혼식은 연기돼 많은 화훼 농가들이 꽃 판매처를 잃게 됐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계약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은 갈 곳이 없어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려워져 농촌에 일 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올랐다. 임금은 오르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해 밭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모임과 회식 축소는 식당에 공급하는 농산물 수요도 줄었고, 그뿐만이 아니었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위협은 코로나19와 함께 앞선데 덮친 격으로 소비를 침체시켜 생산비도 못 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빛발을

찾을 수 있었다.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는 것은 오랜 기간 농경 생활을 해 온 우리나라 민중들의 몸속에 깊이 박힌 ‘협동 정신 DNA’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앞장서고 군부대, 공공기관, 기업들이 적극 호응해 줬다. 많은 국민들이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와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해줬다. 꽃 소비 촉진 챌린지,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대형 유통업체 말레이 판촉 행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마늘·양파 수확 및 적과 작업 돕기, 수해 및 태풍 피해 현장 복구 지원 등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식구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정에서 밥을 먹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구매가 늘어났다 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에 온 힘을 쏟고 있었던 준비된 농업인들에게는 이번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전남 농협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어플린 ‘진꾸’를 개발하고,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양파와 깎 마늘 시범 거래를 시작했다. 또한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작기에 지원하기 위해 ‘일손돕기 119기동대’를 운영해 8월 말 현재 1만 532명

이 참여했으며 수확기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농부 사관학교’에도 전 시군지부에서 한 명 이상을 입학시키고,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는 비 직파 재배는 6362ha로 전국을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로 망고 등 아열대 농산물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고 판매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업인들의 더 나은 농업을 위해 작지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촌 현장에 다닐 일이 많았다 보니 계절 변화와 함께 농작물의 성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들판과 익어가는 벼를 보면 본격적인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다. 수확의 계절에 더 이상의 재해가 없고 맘 흘러 소중하게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돼 농업인과 국민이 모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식(食)을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 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국내산 농산물을 애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격려가 될 것이다.

無等鼓

이틀 뒤면 추석이다.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긴 물난리 등으로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다. 그래도 계절의 순환은 어김없이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달력을 봤더니 지난해 추석은 9월 13일이었다. 올해보다 2주 이상 빨랐다. 해마다 추석의 날짜가 차이나는 이유는 양력과 음력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며, 한 달은 29.53일이 고 1년은 354.37일이 다. 반면 양력은 태양이 기준이 되는데, 한 달은 30.44일이 고 1년은 365.24일이다. 음력이 양력보다 약 11일 짧은 것이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은 하지로부터 73일이 지난 시점이 된다. 여기에 음력으로 생기는 오차를 막기 위해 넣은 윤달 등이 추가되면서 매년 추석 명절 날짜가 달라지게 된다. 역대 가장 빠른 추석은 9월 6일(1634년)이었고, 1900년대 이후만 놓고 보면 9월 8일(1957년, 1976년, 2014년)이 가장 빨랐다. 또 가장 늦은 추석은 10월 8일(1843년, 1919년, 1938

년)로 나타났다. 어쨌거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북반구가 점차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의 자유행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일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맞는 월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한 명절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부모 형제는 물론 친지들과의 만남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후폭풍이 민생 경제를 덮치면서 명절 황금 연휴의 여유로운 온대간대였 고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을 통해 희망을 확인하고 삶의 동력을 찾는 명절이다. 힘든 가족과 친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추석의 미덕이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시대에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추석 명절이 가족을 넘어 사회적 연대로 놓고 보면 9월 8일(1957년, 1976년, 2014년)이 가장 빨랐다. 또 가장 늦은 추석은 10월 8일(1843년, 1919년, 1938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윤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부)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